

##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강호동네서점' 김동현, 온실 속 화초에서 UFC 전설로 거듭난 반전 인생사! 강호동도 울컥?!

2026. 3. 23.

첫 공개와 동시에 쿠팡플레이 인기작 상위권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쿠팡플레이 예능 <강호동네서점>이 지난 20일(금) 공개된 3화에서 강호동의 '애착 동생' 김동현과 함께 승부의 세계에 얽힌 뜨거운 이야기를 풀어냈다.







<강호동네서점>은 목소리는 크지만 마음은 어린 INFP 책방 사장님 '호크라테스'(강호동)가 책방을 찾아 온 손님과 서로의 인생을 펼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평생을 파이터로 살아온 김동현은 온실 속 화초 같았던 어린 시절부터 '동현적 사고'로 주목받는 현재까지의 드라마틱한 인생사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천하장사 출신 '호크라테스' 강호동과 완벽한 '체육인 케미'를 보이면서도, 돌연 미용 시술을 고백하는 등 예측 불가의 입담으로 현장을 초토화시켰다.

김동현은 무명 시절 자신을 버티게 했던 책 <마시멜로 이야기>를 소개한 뒤, 본격 토크를 시작하려는 '호크라테스'에게 "할 얘기 다 했는데요?"라고 말해 강호동을 녹다운시켰다. 예능 베테랑 강호동마저 뒷목을 잡게 만든 김동현만의 엉뚱한 매력은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예측불가 웃음 뒤에는 묵직한 감동도 이어졌다. 김동현은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격투기를 시작했다고 고백하며, 고교 시절 직접 작성한 UFC를 향한 '꿈의 노트'와 직접 출간한 '김동현의 멘탈수업'을 공개해 파이터를 넘어 '저자 김동현'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어 "이기거나 배우거나"라는 파이터로서 신념을 밝힌 그는 한국인 최초 UFC 웰터급 세계 랭킹 6위에 오른 기록과 함께 '국산 노게이타', '스턴건', '매미킴' 등 별명에 관한 뒷이야기를 풀어내 폭소를 터뜨렸다. 이어 화제가 됐던 카를로스 콘딧전 첫 KO패에 대해 "아예 기억이 안 나서 아프지 않았다. 왜 두려워했나 싶다"는 '동현적 사고'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두려움을 "정신이 있을 때만큼은 최선을 다하자"는 단단한 의지로 정면 돌파한 그의 고백은 강호동마저 울컥하게 만들며 진한 여운을 남겼다.

이처럼 김동현은 그간 걸어온 파이터로서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완성했다. 체육인에서 예능인으로 제2의 인생을 걷고 있는 두 남자의 뜨거운 동질감은 김동현의 새로운 매력을 각인시키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동네 '강호동'의 책방 사장님 '호크라테스'와 초특급 손님들의 진솔한 답변이 어우러질 <강호동네서점>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